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
노동본부 보도자료

문의

김주영 의원실

연락처

02-784-5260

e-mail

gimpolovekjy@gmail.com

공무직 노동자, 이재명 승리 위해 뛴다
전국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당선’ 이라 쓰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라고 읽는다”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중앙선대위 노동본부(본부장 김주영·최철호·김영훈)에 따르면 공무직 노동자들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전국자치단체공무직노동조합 연합 대표자들은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해 함께 뛰기로 약속했다.

전국에서 모인 공무직 노동자들은 “국민의 안정을 뒤로한 채 계엄의 독재길로 국헌 문란을 일으킨 윤석열과 그 정권은 이제 완전히 종식시켜야 한다”며 “노동존중의 시대로 가기 위한 선택을 집중하여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이들은 지지선언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노동을 대하는 자세에 진정성이 없었고, 노동정책은 후퇴했다”며 “공공기관의 기준인건비 패널티 제도를 부활하여 전국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우리 공무원 노동자의 노동환경은 저해되고 노노 갈등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공무직 노동자들은 2022년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 취임 후 민주당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부터 만났던 일화를 언급하며, 이 후보의 노동존중 가치가 얼마나 현장과 맞닿아 있는지를 강조했다.

이들은 “지하 2층과 4층에 있던 노동자 휴게실과 샤워실을 지상으로 옮겼다”며 “이 하나만 보더라도 그의 노동인식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이재명 후보에 대해 “공약 실천율로 이미 검증된 후보”라며 “우리는 이재명 후보를 ‘당선’이라 쓰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라고 읽는다”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전국자치단체공무직노조 연합 대표자들은 “작전명 ‘전국명산’ 캠페인을 통해 전국의 공무직표를 한표 한표 모아나갈 것”이라며 “전국을 이재명의 표로 산을 만들어 꼭 당선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주영 노동본부장은 “고용안정이라는 삶의 안정 실현을 위해 만들어진 공무직 일자리가 여러 법과 제도적 한계와 미비로 질 높은 일자리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며 “이번 공무직 노동자들의 지지선언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공무직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 간담회 및 관련 사진

[첨부사진]

